

음란물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판단능력과 자기 통제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김 경 희

연세대학교 아동학과(심리학 전공)

본 논문은 아동이 청소년이 음란물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판단능력과 자기통제능력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된 문헌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음란물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변인과, 그에 관한 연구들이 언급되고 논의되었으며, 자기판단능력 및 자기통제능력 발달을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음란물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과제가 제안되었다.

핵심어 : 음란물 • 도덕적 판단 • 자기통제

I. 서론¹⁾

현대 사회는 Alvin Toffler(1970)가 그의 잘 알려진 저서인 “Future Shock”에서 갈파했듯이, 우리는 인간의 정보수용 한계 역치(threshold)를 훨씬 넘는 정보량이 주어진 과부하 사태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과부하 사태에서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이에 대처하는가에 대한 해결책이 여러 분야에서 모색되어 오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의 발전은 사실적 영상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 이외에, 통제할 수 없는 음란물의 파급은 가장 우려되는 부정적 부산물로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의 만연에 대해서 소위 “인터넷 세대”, 또는 “N세대”라고 지칭되는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은 심각하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성인의 경우에도 그러하겠으나 사고능력이 발달 과정에 있는, 따라서 문제 해결 등의 판단능력이나 자기 통제, 또는 자기 조절

1) 본 연구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 위원회 용역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self-regulation)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들 정보가운데는 우리가 의도하든, 또는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인습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규범을 벗어나는 음란물인 책, 잡지,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국내의 한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박용천, 1997) 아동,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접하고 사용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음의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즉, 1. 아동-청소년의 도덕판단을 포함하는 자기판단의 본질은 어떠한가?
2. 아동-청소년의 자기통제능력, 자기조절능력은 어떠한가?
3.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자기판단과 자기통제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서 본 주제와 유사하거나 근접한 심리학적 연구들을 토대로 음란물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판단능력과 통제능력의 발달경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조사를 근거로 음란물에 노출될 경우, 아동과 청소년이 도덕적인 판단과 자기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출해 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본론에서 음란물이 일반적으로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학적 변인들에 관한 이론적인 개관을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판단에 관

한 이론 및 연구, 아동과 청소년의 판단능력과 자기통제능력에 관한 발달 및 연구들을 개관하여 결론 및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음란물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음란물의 개념 정의 및 견해

정보화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는 음란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수립과 연구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노출된 실태를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미국 뿐 아니라, 국내(박용천, 1997)에서도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음란물의 영향은 직접 비행을 유발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유의할 점은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과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아지는 사춘기 전기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중재가 요청된다고 보겠다.

음란물이라는 개념은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개념으로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음란물은 독자 혹은 시청자에게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노골적인 성 표현물이라고 정의된다(박용천, 1997).

법적으로 음란성에 대한 규정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고,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박용천, 1997).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 그리고 여성 해방론들이 있다. 보수주의적 견해는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인간의 성행위를 비인격화함으로써 인간의 성행위를 비천하게 만들며, 인간의 수치심을 붕괴시키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퇴보적인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의 민주적 질서를 붕괴시킨다는 입장이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보수주의와는 반대로 음란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적 영역의 보호라는 입장을 취하며, 여성해방론적 입장에서는 음란물은 기존 여성 억압적 사회질서를 반영하는 표현물로 보고, 여성의 성 상품화한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까닭에 1970년에 “음란물과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위원회”인 존슨위원회와 미즈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존슨위원회는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위원회로서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일반 성인들에게는 음란물을 제한하지 않고 반포해서, 청소년 대상 반포는 규제하며, 그대신 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음란물의 문제는 법적이라고 보다는 도덕적 판단의 문제에 국한될 뿐이라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박용천 1997).

이에 반해서 미즈위원회는 존슨위원회가 대상으로 했던 것 보다 더 많은 거의 모든 음란물을 검토하여, 음란물은 개인과 사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 규제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존슨위원회가 음란물 규정을 모호하고

추상적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비해서, 미즈위원회가 공헌한 점이라면, 음란물을 성적으로 폭력적인 성 표현물, 지위저하, 지배, 종속, 굴욕을 묘사한 비폭력적 성 표현물, 비폭력적이고 비지위적인 성 표현물, 그리고 나체묘사 등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위원회의 추천 안은 음란물 규제에 대한 입법에 반영되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음란물 효과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는 총체적 역할을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여겨진다(박용천 1997).

2. 성적 행동 순서(Sexual Behavior Sequence; SBS)의 발달

많은 심리학적 이론들은 성적 행동의 각성적, 정서적, 인지적 결정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Byrne, 1971; Fishbein & Ajzen, 1975; Zillmann, 1979). 그러나 대부분의 현존하는 모델들은 이러한 구인들 중 몇몇만을 다루고 있어서 성적 행동에 관한 공통적 효과를 연구하는데 일반적이고 충분한 구조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성에 대한 예외로 성적 행동 순서(Sexual Behavior Sequence)를 들 수 있는데, 이는 Byrne과 Kelly에 의해서 구축된 인간의 성발달에 대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성적행동의 결정자로서 각성, 정서, 인지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Byrne, 1971, 1983; Byrne & Kelly, 1981). 이러한 이유에서 성적 행동 순서는 인간의 성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논의하는 기초로서 사용된다.

성적 행동 순서의 관점에서 보면, 발달 단계에 따라 성적 기능은 다른 요소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Byrne & Kelley, 1981). 다음에 개인의 발달단계, 곧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에 나타나는 성적행동순서의 발달적 변화를 개관하고자 한다.

유아기(Infancy)

유아기동안에 성에 대한 두 가지 과정, 곧 각성과 정서적 반응은 발달적으로 중요한 점이다. 유아들은 생식기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무조건 성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적이다. 유아의 자위행위를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유아는 이러한 자극으로 각성되며 이에 대한 긍정적 정서적 반응(예: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기를 자극하기 위해서(곧 외현적 성적 행동) 예비적 성적 행동(예: 기저귀를 잡아 다니거나, 골반을 이쪽저쪽으로 굴리는 것 등)에 빠지게 된다. 유아의 이러한 자기-자극적 행위가 지속되면, 이 행동의 결말은 유아기에 긍정적으로 강화된다고 보겠다.

고전적 조건형성으로 학습하는 유아의 능력은 이때 두 번째 종류의 성적 발달을 촉진시킨다. 무조건 또는 조건적 성적 단서는 정서를 산출하는 벌이나 보상일 수 있으며 또 이들과 쌍을 이루게 되며, 반복된 쌍의 성적 단서들은 벌이나 상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목욕할 때 생식기에 대한 관심이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자위행위 때나, 옷을 벗었을 때 무시당하거나, 직접 체벌을 당한 유아는 각성과 준비적, 그리고 외현적 성적 행동이 감소되며 성적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발달시키게 된다.

물론 유아성욕은 긍정적 정서적 경험

(웃음, 껴안기 등)과 짝 지워 질 수도 있으며, 이러한 연합은 유아기에 성욕에 대한 긍정적 정서적 반응성향(response disposition)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는 여러 가지 성적 단서에 대해서 각성될 수 있고 또 조건화된 각성과 정서적 반응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가 세련된 인지적 능력을 발달시키기 이전에 성욕에 대한 감정을 발달시키는 능력은 중요한 발달적 현상이다. 특히 정서적 반응이 복잡한 인지적 능력의 발달에 선행된다는 사실은 실존하는 정서적 반응들이 이러한 인지적 행위가 체계적으로 될 때 성욕에 관한 인지적 행위를 지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brausson, 1983; Byrne & Kelley, 1981). 그러므로,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조건 형성한 유아는 성적 지식(예: 성기 이름과 같은 성적으로 관계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정서적 성향과 일관되는 지식을 얻거나 또는 선택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이다(Fisherm et. al., 1983).

성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학습한 유아는 정서적으로 기초한 인지적 평가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감정(정서)은 성적 영역에서 발달적으로 일차적이며, 이는 나중에 나타나는 인지적 능력의 행위를 지시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동기(Childhood)

아동기는 보다 세련된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성과 관련된 평가, 신념, 기대 및 공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성적 정보를 추구하고 동화할 수 있게 된 결과로

서 성욕에 대한 아동의 평가적 반응은 점차 잘 표현된다. 성욕에 대한 평가는 아동에게 정서적 반응 동기를 부여하며, 아동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이 그에 부응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정당화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된다(Byrne, et. al., 1974). 따라서 아동기에는 “더럽다” 또는 “좋지 않다”는 감정적 평가를 많이 하며 또 성욕이 아동에게 왜 그러한 평가를 하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아동기에 언어적으로 기초한 학습은 성욕에 대한 정보적 반응 발달에 영향을 준다. 정보와 기대반응은 성적 공상의 기초를 형성하는 상상적 능력의 증가와 함께 나타난다. 여기서 성적 공상이란 아기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하는가 등에 대한 상상이다.

성욕에 대해서 초기에 획득된 정서적 반응은 본래의 정서적 성향과 일치될 때 생기는 인지적 행위를 지시한다. 또한 인지적 학습은 정서적 반응을 변경시키는 잠재력이다. 정서와 인지는 성적 행동 순서에 의하거나 아동기의 준비적, 외현적 성적 행동(예: 사생활을 추구하는 것, 자기-자극과 또래 이성과 성적 놀이를 하는 것 등)을 지시하고, 이러한 행동들의 결말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으로 가정된다.

청년기(Adolescence)

성적 행동 순서의 정서적 성소(component)의 발달은 유아기에 시작되고, 인지적 성소의 발달은 아동기에 시작된다고 가정되었다. 그러면 사춘기부터 안정된 대인관계가 형성되는 청년기동안에 성적 행동 순서의 발달단계는 무엇일

까? 근본적으로 청년의 성적 행동 순서는 생리적 성소와 사회적 성소의 두 가지 성소에 해당되는 것이라 가정된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청년은 성적으로 더 흥분되고 생식기 자극에 대한 흥분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며, 생식능력이 시작된다. 청년은 이와 같이 새롭게 생긴 과정에 특수하고 알맞은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감정, 평가, 신념 및 기대들은 자위행위, 혼전 성행위, 피임과 관련하여 획득되며, 이러한 반응들은 청년의 성적 행동의 본질과, 결말의 질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기에는 특히 성적 공상이 뚜렷한데, 왜냐하면 인지적 능력과 상상력이 증진되고, 또 성적 가능성을 안전한 공상으로 생각하고, 성적 행동을 공상 속에서 시연해보려는 동기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성욕은 청년기에 생리학적으로 기초한 실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초한 현상이며, 성적 행동 순서는 사회적 자극과 관련해서 발달한다. 청년의 감정, 평가, 신념, 기대 그리고 공상은 청년기의 사회 성적 상호작용을 형성하며, 또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 청년기에는 개인은 대인적 성적 행동을 위해서 성에 대해서 비슷한 각성과 정서적 인지적 반응을 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Byrne, 1971; Fisher & Byrne, 1981). 성적 행동 순서는 따라서 청년기 때 생기는 생리적으로 기초한 성욕의 요구와 대인적 성적 행동의 요구에 맞도록 발달한다.

성인기(Adulthood)

성인기에 성적 행동 순서의 기초과정은 잘 발달되었으나, 성인의 특징적인 성적

사건에 반응하려는 욕구가 아직도 크다. 장기간의 이성관계를 수립한 사람에게, 이성간의 성과 관련된 각성, 정서적·인지적 과정은 내적·대인적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결혼한 사람에게 성욕에 관한 학습된 정서적·인지적 반응은 일상생활의 다른 사람들(예: 직업, 아동 등)과 비교해서 임신 중 성적행동, 성적 권태, 성적 성실과 같은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미혼이거나 동성애와 갖는 성적 생활양식을 갖는 사람들은 성적 순응을 해야 하며, 또 이러한 순응의 결말의 질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성적 행동 순서는 성인의 성욕을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성인의 성적 욕구의 본질은 일생동안의 상호관계에서의 성인의 각성, 정서적, 인지적 성적 반응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한다.

노년기(aging)

노년기는 성적 행동 순서의 마지막 발달단계로서, 이때는 성적 능력에서 뚜렷한 생리학적 하강기이다. 성적 능력이 일생동안 지속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노년기에는 의미 있게 생리학적으로 기초한 변화가 생긴다(Masters & Johnson, 1966).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의 본질은 이러한 생리적 변화를 성공적으로 직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된다. 예컨대 성욕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과, 성욕과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기대 및 성적 각성의 출처로서 공상을 가진 개인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과, 성욕과 노화에 대한 부정확한 신념 및 제한된 공상 능력을 가진 개인보다

노후에 성적 즐거움을 훨씬 더 계속할 수 있다. 노화(aging)는 은퇴, 배우자의 사망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변화 및 생리적 변화의 시기이며, 성욕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반응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을 형성할 것이다.

요약하면, 성적 행동 순서의 다양한 성소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다. 즉 유아기에는 정서적 과정이 중요하며, 아동기에는 신념과 기대가, 그리고 청년기에는 공상(fantasy)이 중요하다. 청년기부터 성적 행동 순서는 중요한 대인관계 과정이 되며, 성인기와 노년기에 성숙한 성적 행동 순서는 특징적인 성적 변화에 반응하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성적 행동 순서는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 성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한 성적 사건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3. 음란물의 영향과 심리학적 변인들 노출시기

13세부터 39세에 이르는 미국의 남성과 여성에게서 X등급을 받은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연구가 있다(Bryant, 1985). 이 조사에 따르면 최초로 음란물에 노출되는 평균연령은 12.6세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반응자는 잡지와 음란영화에 노출을 보고했다. 조사대상자 중 성인은 음란영화에 처음 노출 연령이 18세였고, 고등학생 피험자는 17세에, 그리고 중학생은 15세에 음란 영화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노출연령의 차이는 성교육, 성적 음란물의 영향, 위성 TV방송의 성적 자료들, 가정에서의 성 비디오물의 출현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국내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YMCA, YWCA 등에서 계속하고 있는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자료 집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들은 학문적인 연구영역에 넣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음란물 조사대상이 음란물이라기 보다는 잡지나, 비디오 영화, 만화 등이고,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 접촉실태를 조사한 것은 박용천(1997)의 조사연구를 유일하게 꼽을 수 있을 수 정도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최초로 음란물에 노출되는 시기는 중학교 1, 2 학년으로 평균연령이 12세 정도로 미국의 80년대의 경우와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행동

음란물 접촉 경로는 대부분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 학교 상급학년의 경우는 부모가 보던 것을 우연히 보게 됨으로써 비롯된다.

Baron과 Byrne(1974)은 여러 가지 성적 태도의 근원을 시사하며, 성적 행동을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변인들을 요약하는 이론적 체계를 언급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성적 행동에 대한 외현적 반응성, 성적 반응에서의 개인차, 음란자극(음란물)의 효과를 다루었다.

아동과 10대 청소년들은 어떤 단어들은 얘기해서는 안되며, 신체의 어떤 부분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습한다(Libby & Nass, 1971).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들은 부모나 성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음란물의 위험성은 성적 공격성을 조장하

는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뿐 아니라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가장 큰 공격성은 외설영화를 본 사람 가운데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공격성을 나타낸 것은 중립적 영화를 본 후였다(Zillmann, 1971). 영화에서 범죄나 성적인 장면은 그에 수반되는 공격적 반응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공격성이 강할 때, 성적 흥분은 이러한 공격적 반응강도를 가산시켜서,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성적 흥분보다는 공격성이 부각된다는 것도 발견했다. 결국 약한 정도의 성적흥분은 공격성을 억제하지만 강한 흥분은 공격성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성 행동은 음란물에 대한 노출기능으로 빈도가 많으면 촉발되는데, 이는 음란물이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관찰학습이 갖는 힘에 대한 지식은 모델링 효과가 개인으로 하여금 관찰된 음란 행동을 모방하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란물을 본 사람들은 몇 시간 내에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성행동을 하는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알려졌다(Davis & Braught, 1973). 예컨대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자위행위를 하였고, 결혼한 부부들은 성교를 한다는 결과였다(Cattell, Kawash, & De Young, 1972; Kutichinsky, 1971).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개인이 음란물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감소한다(Mann, et. al., 1974).

공상

성적행동순서에 따르면, 인간은 무조건 곧 학습되지 않는 성적-생리적 반응과 관련된 단어에 반응한다. 인간에게, 무조건

성적 자극은 생식기, 곧 성감대에 대한 촉각적 자극차(Masters & Johnson, 1966)와 이때 생기는 화학적 분비물은 성적 유인물로 작용한다(Comfort, 1971; Doty, Ford, Preti, & Huggins, 1975; Michael, Bansall, & Warner, 1974).

인간의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인들은 생리학 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Kelley(1986)에 의하면, 성 행동은 홀몬 수준에 대해서보다는 성애적 공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성에 대한 공상 자체가 성적자극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상상을 사용한 사람은 실제로 선정적인 자극에 노출된 사람보다 성적으로 더 흥분된다는 것을 보고했다(Byrne & Lambirth, 1971).

직접적인 교수(instructions)의 효과 이외에, 관찰학습의 과정(Bandura, 1971)은 성과 관련된 인지적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화나 소설 등에서 성행동을 하는 모델을 다만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성적 신념과 기대 및 공상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폭력적 음란물을 읽은 사람은 여자들이 성을 즐기기 위해서 신체적 학대를 필요로 한다는 혐오적 신념을 획득하게 될지 모른다. 모델의 결말 역시 개인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폭력적 음란물을 시청한 사람은 성을 얻기 위해서 폭력이 효과적이며, 이러한 폭력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모델 행동에 기초한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 모델이 된 사람의 성적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특히 성적 공상에 중요한 출처가 될 수 있다.

폭력적 음란물의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

들(Malamuth & Donnerstein, 1982)은 관찰학습이 성에 대한 신념, 기대, 및 공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Malamuth & Donnerstein (1982)은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집단에는 폭력적 음란물에 통제집단은 중립적 자료에 노출시켰다. 며칠 후 폭력적 음란물에 노출된 피험자들은 통제집단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선호하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적 음란물의 관찰은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관찰학습이 성과 관련된 신념, 기대 및 공상의 학습과 수정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적 공상과 외현적 성적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성적 공상은 외현적 성적 행동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적으로 기능적인 남성 여성은 성적으로 불능인 사람들에게 비해서 성적 공상을 더 오래하며, 성적 공상에 대해서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Zimmer, Borchardt, & Fischele, 1983).

연구결과에 의하면, 10대 성 행동도 성적 단서(sexual cue)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공상은 외적 상상으로 나타나거나, 자아 창조적으로 생리적 흥분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상적 증거 이외에, 성적 신념, 기대, 공상과 성행동의 결말간의 중요한 관계와 연결을 시사하는 일련의 조사연구들도 있다. 예컨대 Hunt(1974)는

혼전 성 행동을 경험했던 결말에 대해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조사했는데, 종교적인 사람은 혼전 성 행동을 즐겁다고 보고한데 비해서, 비종교적인 사람들은 즐겁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Hunt는 종교적 신념과 기대 및 상상은 혼전 성을 즐기는 것을 죄악시키는 반 교리적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종교적 여성과 비종교적 여성의 결혼의 성생활의 결말에 대한 연구는 성과 관계된 인지와 결말간의 관계를 지지해 주고 있다(Tauris & Sadd, 1978).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성적 표현의 장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서 비종교적인 사람은 결혼의 성생활을 신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덜 했다. 이러한 연구와 조사 결과는 성과 관련된 인지경험과 결말간에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겠다.

대인관계

공상과 같은 내적 성적 현상에 관한 연구이외에, 책, 잡지, 영화 등에 노출되었을 때와 같은 외적 공상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집중되어 수행되었다(Yaffe & Nelson, 1982). 최근 연구의 특징은 특별한 내용을 가진 성애적 자극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란물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예컨대 성적으로 흥분된 남성은 음란물에 노출이 적어서 덜 흥분된 남성에게 비해서 여성을 신체적으로 매력적으로 지각하고 성적으로 더 반응적이었다.

음란물에 노출되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잘생기고 미인인 이성을 더 매력적이고

사귀고 싶다고 지각하며, 타인이 매력적이지 못하면 실제보다 덜 매력적으로 지각한다(Stephan, Berscheid, & Walster, 1971; Istvan, Griffitt, & Weidner, 1983). 이성에 대해 감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음란물에 의해 흥분되면 외현적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노출한 대상에게 긍정적으로 느끼며, 그 상대를 더 오랫동안 쳐다보고 더 가까이 앉으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부정적 경험을 갖는 사람은 이성을 쳐다보는 것도 피하고 그 곁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는다(Griffitt, May & Veitch, 1974).

결론적으로 음란물의 자극에 노출이 법에 위반되는 강력한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 연구는 없다. 현재로서는 음란물과 관련된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성에 대한 부적응적 신념, 부정적 정서적 반응, 그리고 적절한 모델 부재와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가 알려지고 있다.

성범죄

성범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놀랍게도 성 범죄자들은 정상인과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서 청년기에 음란물에 덜 접촉했다는 사실이다(Goldstein, Kant, & Hartman, 1974). 성범죄를 행한 사람들은 아동기 때에 성적 억압을 했거나 성적으로 엄격한 부모에게서 자랐다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6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아동기 경험을 보면 정상아가 2%인데 비해서 강간범 가운데 30%는 노골적인 음란물에 노출되었다.

Eysenck (1972)은 정상남성이 음란물에 노출된 평균연령은 14세인데 비해서

성범죄자들의 평균연령은 18세였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정부가 모든 종류의 외설물의 판매를 허가한 이래, 성범죄의 빈도는 뚜렷하게 감소되었다(Kutchinsky, 1973). 따라서 노출시기가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최근 Marshall과 Barfarce(1984)는 성 범죄자는 음란물의 영향을 특히 잘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고했다. 강간범과 정상남성을 연령,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해서 비교한 결과, 성 범죄자는 정상아보다 강간을 포함한 공상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Marshall, 1985). 또 아동 치한의 53%, 강간범의 33%는 범죄행위의 준비의 한 부분으로 음란물을 시청한다고 보고했다.

성범죄 이외에 성적 공격성은 남성전집(population)에서 전반적인 특징으로 나타난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arin & Parcell, 1977)와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Mosher & Anderson, 1986; Rapaport & Burkhan, 1984)는 성적 강요는 남성 집단에서 공통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성은 자신의 공상이나, 공상 속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의 강간에 대한 공상대문에 공격적이라는 것이다(Malamuth, 1986; Greendlinger & Byrne, 1986).

음란물을 공인하기 전과 후에 성범죄 발생의 빈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관한 어떤 연구는 대단히 흥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1969년에 음란물을 16세 이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바, 예상과는 달리 강간범 수

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동치한과 동성에 범죄는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Green, 1985; Kutchinsky, 1985).

이와 동일하게 서독에서는 1973년에 음란물 판매가 공인되었는데 강간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성범죄는 수년간 11%나 감소추세를 보였다. 영국에서는 1974년에 성인잡지 등의 음란물이 공인되었는데 성범죄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일본의 경우는 음란물의 대부분 주제는 강간이었는데 강간범죄의 비율은 미국의 1/16에 지나지 않았다(Abramson & Hayashi, 1984).

범죄적 음란물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Malamuth와 Donnerstein(1984)은 여러 주제의 성범죄는 금지적 불안감을 감소시켜서 결국 공격성을 더 수용하게 되어 성적으로 공격적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성범죄의 결정적 요소는 “성”자체 보다는 폭력이라는 것이다(Blake, 1986).

III. 자기판단 능력의 발달

1. 자기판단: 도덕적 판단

도덕성(morality)은 판단능력의 척도로서, 개인이 옳고 그름을 구별 할 수 있는 내면화된 일련의 규범이며, 이 규범과 원리에 따라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자긍심을 느끼고 이를 위반했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Suinn, Houts, & Graesser, 1994; Shaffer, 1994)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외적 보상을 기대하거나 또는 벌이 무서워서 규범을 따

르다가, 점차 지금까지 학습해온 도덕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며, 외적 보상이나 벌이 없어도 도덕규범을 준수하게 된다. 아동은 보상이나 벌 등의 외적 요인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을 하다가 내적 기준과 원리에 따른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의 내면화는 도덕적 성숙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도덕성은 정서, 인지, 행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도덕성 판단의 이론들은,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강조되는 요소가 다르다. 도덕성의 정서요소는 옳고 그른 행위결과에서 감정, 즉 죄책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한 공감 등을 가리키며, 이는 도덕적 사고와 행동의 동기에 따라 다르다. 인지적 요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행동적 요소는 규칙을 어기거나, 어기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실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의미한다.

정신분석이론은 도덕의 정서적 요소를 강조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아동들은 자기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죄책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 규범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인지발달 이론은 도덕성의 인지적 측면인 도덕적 추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성숙해 가면서 발달되어 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아동들이 어떻게 유혹에 견디는 것을 배우며, 거짓말하고 훔치고 속이는 등의 행동을 억제하고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자기 통제력과 자기 판단 능력을 보다 잘 설명하는 인지이론 및

사회학습과 관련된 이론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인지발달 이론

인지발달 이론은 어떤 행위가 옳은지, 옳지 않은 지를 결정할 때 사고 과정에서 생기는 도덕적 추리의 발달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론이다. 인지이론의 중요한 가정은 도덕 발달이 인지발달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도덕적 추리는 일정한 순서에 따른 단계로 발달되는데, 각 단계는 도덕적 문제를 추리하는 공통적이고 일관된 특징을 나타낸다. 도덕성에 관한 인지 발달이론에는 Piaget이론과, Piaget이론을 확장한 Kohlberg이론이 있다.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순서는 연령과 도덕추리간의 높은 상관이 발견됨으로써 검증되었다. Kohlberg의 연구 뿐 아니라, 멕시코, 바하마, 대만, 혼두라스, 인도, 나이지리아와 케냐(Colby & Kohlberg, 1987), 그리고 한국(김경희, 1976)등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횡단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발달순서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된 종단적 연구에서도 또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즉 Colby 와 그의 동료들(1983)은 10, 13, 16세의 남아 58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3, 4년 간격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Kohlberg의 도덕 추리 반응을 평가한 결과, 전 인습적 수준인 단계1과 2는 청년기에 들면서 급격히 감소하고 인습적 수준인 단계 3과 4가 증가했으며, 후 인습적 수준인 단계5는 극히 일부 성인들에

게서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이외에 아동들은 Kohlberg가 제안한 발달순서를 정확하게 밟아가며, 단계를 뛰어넘는 아동들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7~13세에 이르는 남녀아동 420명을 대상으로 했던 김경희(197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즉 7, 8, 9세 아동은 1단계, 10세 아동은 2단계로 전 인습적 수준에 있고, 11세부터는 3단계 즉 “착한 아이 지향 단계”인 인습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밝혀졌다. 김경희는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관 발달은 12세에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1999, 2000)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에서 20년 전의 연구자의 결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아동과 청소년들의 도덕 판단 수준은 전 인습적인 수준에서 인습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곧 벌과 명령을 잘 따르고 전통적인 도덕 규범인 “착한 아이” 지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

도덕성의 행동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을 구축한 사람들은 Bandura(1986, 1991)와 Mischel등의 사회학습이론가들이다. 이 이론가들에 의하면 도덕성은 보상과 벌, 그리고 관찰학습을 통해서 학습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Hoffman(1970)은 도덕성의 중요한 준거는 유혹을 얼마나 잘 견디어 내는가하는 “유혹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았으며, 도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 방식

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많은 연구 결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혹에 대한 저항

외적 감시가 없을 때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도덕 규칙을 학습해서 그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내면화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도덕규칙 준수동기가 내면화되는 것을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강화, 벌, 사회적 모델링이 아동의 도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Bandura, 1971).

Perry와 Parke(1975)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좋아하지 않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을 강화 해 줌으로써 아동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도덕적 통제를 학습시킬 때 금지할 행동과 대치되는 행동을 강화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찍이 따뜻하고 사회적 강화를 많이 해 주는 부모로부터 받은 벌은 냉담하고 차가운 부모로부터 받은 벌보다 아동이 유혹에 저항하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Sears, Maccoby & Levin, 1957).

모델링(modeling)이 아동의 도덕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연구에서, Grusec과 그의 동료들(1979)은 유혹에 잘 견디어 내는 모델이 자기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으며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돼는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했을 때 아동들은 그 모델의 행동을 따르게 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 나아가서 모델이 말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아

동의 도덕추리수준과 일치할 때에는 그 영향력이 더 컸다는 것도 알려졌다(Toner & Potts, 1981).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Toner, Parke와 Yussen(1978)은 아동 피험자에게 다른 아동들의 도덕적 행동통제의 모델 역할을 하도록 했을 때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아동들 보다 유혹 저항 측정에서 규칙을 지키는 경향, 즉 유혹에 잘 건디는 경향이 더 높아졌다는 결과를 얻었다. 달리 표현해서 모델역할을 하는 것이 아동의 자아개념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모델역할을 한 후 아동은 자신을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

Hoffman(1970)은 부모의 양육방법이 아동의 도덕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하여 세 가지 양육방법을 비교하였다. 이 세 가지 양육방법은 애정철회(love-withdrawal), 권력행사(power-assertion), 그리고 귀납적 훈육(induction)이다. 애정철회는 아동이 잘못된 후에, 관심, 애정이나 인정을 억제하여, 잘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권력행사는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진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공포, 분노를 일으키는 강압적인 명령이나, 신체적 억압, 때리거나 밥을 못 먹게 하는 등의 특권을 철회하는 방법이다. 귀납적 훈육방법은 아동에게 왜 그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또, 왜 다르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며, 동시에 잘못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아동이 입힌 손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시사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Hoffman은 애정철회와 권력행사 방법은 아동의 도덕성 성숙에 효과가 없으나, 귀납적 훈육은 도덕의 세 가지 측면인 도덕 정서, 도덕판단, 도덕행동 등 모두를 증진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Brody와 Shaffer(1982)는 세 가지 부모 양육 방식과 아동의 도덕성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Hoffman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권력 행사 양육 방식은 불복종, 반항,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결여와 관계되었다는 것도 알려졌다(Crockenberg & Litman, 1990; Kuczynski & Kochanska, 1990; Zahn-Waxler, Radke-Yarrow & King, 1979).

Hoffman은 귀납적 훈육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귀납적 훈육방법은 아동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 기준을 제공해 주고, 둘째, 귀납적 훈육방법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이 해를 입힌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끝으로 귀납적 훈육방법은 아동이 위반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며, 이미 잘못된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귀납적 훈육방식은 도덕성의 사회화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도덕적 행동에 이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자기통제능력의 발달

자기통제(self-control)란 용어는 행동을 조절하거나, 수행능력을 저하시켜서 규칙위반 같은 행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루기 위해서, 발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도입된 것이다. 자기조절(self-regulation)이란 용어는 어떤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유혹에 저항해야 하는 자기통제를 할 때, 동시에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을 뜻한다. 따라서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은 어떤 결정적 행동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인 것이다.

아동이 나이가 들에 따라, 자아통제를 증가시키는 일반적 전략도 증가된다. Mischel과 Mischel(1983)은 학령전기부터 6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통제 전략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세 아동은 자아통제 전략을 습득하지 못한 반면, 5세 말경이 되면, 기다리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행동을 터득한다.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것 또는 기다리면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되풀이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습득하게 된다. 3~6학년 아동은 보상과 과제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는 자아통제에 도움이 된다고 간주되었다.

자기통제 및 자기조절의 발달

유아기

아동이 자기조절과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발달이론가들은 2세 경에 자기통제가

생긴다고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18~25개월에 유아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는 복종적 행동을 나타낸다. Crockenberg과 Litman(1990), 그리고 Kaler와 Kapp(1990)은 유아는 돌보는 사람의 기대를 알아챌 수 있고 그의 요구와 명령에 복종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물건을 깨뜨리거나 먹지 못한 과자를 몰래 훔쳐먹는 것과 같은 금지된 일을 했을 때, 유아는 조심스럽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Cole, Barrett, & Zahn-Waxler, 1992; Kochanska, Casey, & Fukumoto, 1995). 발달적으로 2~3세 때 유아는 불복종인 것이 특징이므로, 흔히 비난이나 벌에 의해 외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보통이다(Bullock & Lutkenhaus, 1990).

Erikson에 의하면 3세 전후의 유아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회의라는 심리 사회적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즉 불복종하여 타인의 벌이나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의 고집과 결정한 대로하려고 한다.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려하지 않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유아는 “싫어”, “안 해” 등으로 자기주장(self-assertion)이나 반항(defiance)을 한다. 그런데 언어를 획득하게 되면서 유아는 성인의 기준을 자기의 언어로 협응 시키게 되며, 행동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협응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Kochanska, 1993).

Vaughn, Kapp 그리고 Krakow(1984)는 18개월, 24개월, 30개월 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① 장난감전차를 만지지 말 것, ② 먹으라고 할 때까지 컵 밑에 감추어진 건포도를 먹지 말 것, ③

실험자가 작업을 끝낼 때까지 선물을 풀지 말 것 등 세 가지 과제를 주고, 유아가 이러한 유혹에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를 관찰하였다. 세 가지 과제 모두에서 18개월 된 유아는 20초 내외, 24개월 된 유아는 70초 내외, 그리고 30개월 된 유아는 80-110초를 견디는 인내심을 보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또한 언어가 잘 발달된 유아가 강한 자기 통제를 보였는데,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Vygotsky(1934/1962)가 언급한 사적 언어는 어린 아동의 인지과제 해결뿐 아니라 충동을 통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기통제능력의 발달을 연구하는데 효율적인 접근 중 하나가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패러다임이다(Shaffer, 1999). 만족지연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유인가가 적지만 즉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경우와, 더 큰 유인가를 나중에, 즉 지연시켰다가 보다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령 전 아동은 적은 유인가를 눈앞에 보이는 즉시 얻는, 즉 만족을 지연시키는 저항력이 적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10-12세가 되어야 비로소 기다렸다가 큰 유인가를 가진 물건을 선택하는 인내심을 보인다(Mischel, 1986). 만족지연에 관한 일련의 연구결과, 연구자들은 아동이 지적으로 성숙되어야 사고와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효율

적 전략을 고안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자기통제는 초등학교기간에 점차로 향상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특히 나중에 지연했다가 큰 유인가를 얻게 되는 물건을 선택하는 인내심은 추상적 관념화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Piaget, 1935/1960)에서 기초하므로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가는 청소년시기에는 자기-통제 능력이 안정적으로 발달되게 된다.

아동후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청소년이 즉각 만족을 지연시키고 규칙을 따르거나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조절과 자기통제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시키기 때문이다. Rosenberg(1979)는 아동후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규정에 관한 질문을 한 연구에서 아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내하는 것”, “충동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 등의 자기규율에 관한 언급이 많았으며 후기 청소년들은 “남을 헐뜯는 것” “과제를 완성시킬 수 없는 것” 등 자기통제의 실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고했다. 따라서 자기통제능력은 대부분 10대 청소년들이 자아개념을 구체화하는데 바람직하고 필수적인 속성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Schaffer, 1999).

Toner, Moore, 그리고 Emmons(1980)는 6세부터 9세에 이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연만족 실험을 하였다. 이 실험에서 한 집단의 아동에게는 “인내심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다른 집단의 아동에게는 “멋진 친구를 가졌다고 들었다”고 지시를 주었다. 연구결과에서 “인내심이 있는 것”으로 지시를 받은 아동은 멋진 친구를 가졌다고 명명되어진 아동보다

더 오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에서 Casey와 Burton (1982)은 성인이 아동에게 인내심이 있고 정직하며 자기 규율적이라고 아동의 이미지를 언급하면, 자기 통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기통제능력을 연구하는 발달심리학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기통제 능력에 개인차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차는 이미 2세 경에 분명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무기력하고 때를 쓰는 유아에 대해서 반응적이지 못하거나 야단치는 경우에, 학령 전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반항적이 되며, 통제되지 않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Beckwith, Rodning, & Cohen, 1992; Henry, Caspi, Moffitt, Silva, 1996; Shaw, Keenan, & Vondra, 1994). 따라서 생의 초기에 훈육의 결핍은 미래에 부정적인 속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Mischel, Shoda, 그리고 Peake (1988)는 학령 전 아동을 대상으로 10년간 종단 연구를 실시하여, 초기에 자기 통제를 보이는 아동은 그 후에도 건강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즉 학령전 시기에 그들 부모에 의해서 만족을 지연시킬 수 없던 청소년들은 참을성이 없고 충동적으로 서술되었으며, 학령 전부터 만족을 잘 지연시켰던 청소년들은 학령 전부터 자기통제력이 낮은 또래에 비해서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기 신뢰적이고 스트레스를 잘 견디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통제는 안정된 속성일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높은 자존심을 예언하는 속성들(예; 인지적 유

능성, 사회적 기술, 자기확신, 자기신뢰)과 성인기의 직업 및 대인관계의 성공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다(Harter, 1990; Hunter & Hunter, 1984; Newman, Caspi, Moffitt, & Silva, 1996).

V. 결론 및 제언

음란물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들, 특히 성범죄와 대인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강하게 시사되는 바는 6-10세 아동기에 음란물에 노출될 때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Malamuth, 1986. 재인용). 뿐만 아니라 음란물에 노출된 시기가 빠른 경우에 대인관계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이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게되며, 여성을 비인격적으로 비하시키는 태도를 형성시킨다는 것도 명백해졌다.

우리 나라 조사연구에서도 음란물의 노출시기가 중학교 1, 2학년이라는 사실을 미루어볼 때, 음란물이 우리 나라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은 명약관화하다. 더 나아가서,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기와 청소년의 자기판단능력은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착한 아이 지향적이고, 외부환경의 압력에 취약하므로, 아동과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의연할 수 없다. 따라서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상황에서 친절로서, 또는 친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친구들의 행동에 동조하게 된다.

또 이 시기에는 자기통제능력이 불완전하게 형성되어있다. 즉 눈앞에 보이는 즉각적인 욕구나 유혹을 견디어내는 인내심

과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이와 같은 발달특성에 기초하여 음란물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음란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상술된 연구자료를 근거로 하여, 음란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음란물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미국 뿐 아니라 국내의 연구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음란물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고도 시급하게 요청된다. 아울러 “미즈”와 “존슨” 두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잘 계획된 성교육 프로그램이 병행,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도덕적 통제와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동기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는 강화, 벌, 사회적 모델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erry와 Parke (1975)이 시사한 바와 같이, 자기통제를 할 수 있는 도덕적 통제를 학습시킬 때 금지할 행동과 대안이 되는 행동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유혹에 건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음란물 등을 몰래 보다가 발각되는 경우에, 벌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설득이 중요하다. Hoffman (1988)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기통제능력을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지된 행동이 왜 나쁜지, 또 왜 죄책감을 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시에 정직한 행동을 할 경우에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직성을 심어주어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동과 청소년이 좋아하고 닮고자 하는 모델의 도덕적 행동과 규칙준수 등을 거론해서 그 모델의 행동을 따르도록 하는 것도 아동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능력과 자기판단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 Hoffman (1970)이 제안한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판단능력을 증진시켜서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귀납적 훈육방식이 추천되고 또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운동”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 이 귀납적 훈육 방식은 도덕성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1961년 미국경제와 성취동기를 관련시켰던 유명한 연구에서 Harvard 대학의 McClelland 교수도 경제발전을 증진시키는 데는 성취동기가 강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런데, 이 성취동기는 어렸을 때 형성되므로, 부모들은 특정양육방식과 훈육방식을 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4. 자기통제에 필요한 책임과 능력은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아동과 청소년 자신에게 달려있다. McClaughhine과 Cinagey(1981), 그리고 Hayes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안한 바와 같이, 자기통제를 위한 시도로 자기관리(self-management)와 인지행동수정(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을 추천하고 싶다. 자기관리에 중요한 것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자기기록과 자기평가를 하고, 자기에게 칭찬하거나 보상을 주는 등의 자기강화를 들 수 있다. 인지행동 수정은 Meichenbaum(1977)이 발달시킨 프로그램으로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충동적인 청소년들을 성공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으며, 또 이 방법은 Manning(1981)에 의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통제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검증되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76). 한국아동의 도덕관 발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지, 1, 9-26.
- 김경희(1996).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9 (1), 1-14.
- 김경희(1997).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0 (1), 43-56.
- 김경희(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2 (1), 14-24.
- 김경희(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 (1), 81-93.
- 박경식(1983). TV영화의 성적 내용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용천(1997). 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미치는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울 YMCA(1989). 청소년 음란 비디오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청소년 성교육상담 센터.
- 서울 YMCA(1989). 청소년 불량출판물 접촉에 대한 설문조사보고서. 청소년성교육상담센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Abramson, P. R., and Hayashi, H. (1984). Pornography in Japan : Cross-cultural and thoretical considerations. In N. M. Malamuth and E. Donnerstein (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Allgeier, A. R. (1978). *Attitudinal and behavioral correlates of sexual knowled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 Bandura, A. (1989). Social cognitive theory. In R. Vasta(Ed.),

-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Theories of child development: Revised formulations and current issues*. Connecticut: JAL Press.
- Bandura, A. (1991). Social cognitive theory of moral thought and 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Baron, R. A., & Byrne, D. (1974). *Social psychology*. Boston: Allyn & Bacon.
- Baron, R. A., & Byrne, D. (1987).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Boston: Allyn & Bacon.
- Baron, L., and Straus, M. A.(1984). Sexual stratification, pornography, and rape in the United States. In N. M. Malamuth and E. Donnerstein (eds.),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Beckwith, L., Rodning, C., & Cohen, S. (1992). Preterm children at early adolescence and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material responsiveness from infancy. *Child Development*, 63, 1198-1208.
- Blake, R. R.(1986). The classified cinema: Rating of new feature film. *Albany Times Union*, 7, C-1.
- Brody, G. H., Shaffer, D. R. (1982). Contribution of parents and peers to children's moral socialization. *Developmental Review*, 2, 31-75.
- Bryant, J. (1985). *Testimony on the effects of pornography: Research findings*. Paper presented at the U. S. Justice Department Hearings, Houston.
- Bullock, M., & Lutkenhaus, P.(1990). Who am I? Self-understanding in toddlers. *Merrill Palmer Quarterly*, 36, 217-238.
- Byrne, D., & Kelly, K. (1986). *Alternation approaches to the study of sexual behavior*.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 1: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 P. M., Barrett, K. C., & Zahn-Waxler, C.(1992). Emotion displays in two-year-olds during mishaps. *Child Development*, 63, 314-324.
- Crocke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Maternal correlates

- of child def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isher, W. A. (1986). A Psychological approach to human sexuality: The sexual behavior sequence. In D. Byrne & K. Kelly (Eds.),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study of sexual behavior*. New Jersey: Lawrence Erlbaum.
- Golden, M., Montare, A., & Bridger, W. (1977). Verbal control of delay behavior in two-year-old boys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Child Development*, 48, 1107-1111.
- Green, R. (1985). *Exposure to explicit sexual materials and sexual assault: A review of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U.S. Justice Department Hearings, Houston.
- Greendlinger, V., & Byrne, D. (1985). *Proximity and affiliative needs as joint determinants of classroom friendship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Greendlinger, V., & Byrne, D. (1986). Coercive sexual fantasies of college males as predictors of self-reported likelihood to rape and overt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Sex Research*.
- Griffitt, W., May, J., & Veitch, R. (1974). Sexual stimulation and interpersonal behavior: Heterosexual evaluative responses, visual behavior, and physical proxim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367-377.
- Grusec, J. E., Kuczynski, L., Rushton, J. P., & Simutis, Z. (1979). Learning resistance to temptation through obser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5, 233-240.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M. LaGreca (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Obtaining self-report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Boston: Allyn & Bacon.
- Hayes, S. C., Rosenfarb, I., Wulfert, F., Munt, E. D., Korn, J., & Zettle, R. D. (1985). Self-reinforcement effect: An artifact of social standard sett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8, 201-214.
- Henry, B.,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 (1996). Temperamental and familial

- predictors of violent and nonviolent criminal convictions: Age 3 to age 18. *Developmental Psychology*, 32, 614-623.
- Hoffman, M. 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New York: Wiley.
- Hunter, J. E., & Hunter, R. F. (1984). Validity and utility of alternative predictors of job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96, 72-98.
- Kaler, S. R., & Kopp, C. B. (1990). Compliance and comprehension in very young toddlers. *Child Development*, 61, 1997-2003.
- Karniol, R., & Miller, D. T. (1981). The development of self-control in children. In S. S. Brehm, S. M. Kassir, & F. X. Gibbons (Eds.),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elley, K. (1986). *Health Correlates of self-destructivenes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Kochanska, G., Casey, R. J., & Fukumoto, A. (1995). Toddlers' sensitivity to standard violations. *Child Development*, 66, 643-656.
- Kohlberg, L. (196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s toward a moral order. I: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Vita Humana*, 6, 11-33.
- Kohlberg, L. (1973). 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revisited. In P. B. Baltes & K. W. Schaie (Eds.),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Kopp, C. B. (1987). The growth of self-regulation: Caregivers and children.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s in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0). Development of children's noncompliance strategies from toddlerhood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26, 398-408.
- Malamuth, N. M. (1986). Predictors of naturalistic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30-340.
- Malamuth, N. M., and Donnerstein, E., (eds.) (1982). *Pornography and sexual aggression*. New York: Academic Press.

- Manning, B. H. (1991). *Cognitive self-instruction of classroom proces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cClelland, D. C. (1961). *The achieving society*. New Jersey: Van Nostrand.
- McLaughlin, T. E. & Gnagey, W. J. (1981). *Self-management and pupil self-contro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Los Angeles.
- Meichenbaum, D. (1977). *Cognitive behavior modific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New York: Plenum.
- Mischel, W. (1974). Processes in the delay of gratifica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7). New York: Academic.
- Mischel, W., & Baker, N. (1975). Cognitive appraisals and transformations in dela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254-261.
- Mischel, W., & Ebbesen, E. B. (1970). Attention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29-337.
- Mischel, H. N., & Mischel, W.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Mischel, W., & Patterson, C. J. (1976). Substantive and structural elements of effective plans for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942-950.
- Newman, D. L., Caspi, A., Moffitt, T. E., & Silva, P. A. (1997). Antecedents of adult interpersonal functioning: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ge 3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06-217.
- Perry, D. G., & Parke, R. D. (1975). Punishment and alternative response training as determinants of response inhibition in childre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91, 257-279.
- Quinn, R. A., Houts, A. C., & Graesser, A. C. (1994).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ity: A question-answer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62, 260-267.
- Rest, J., Turiel, E., & Kohlberg, L. (1969). Level of moral judgement as a determinant of preference and comprehension of moral judge-

- ments made by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37, 225-252.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hwartz, S. (1973). Effects of sex guilt and sexual arousal on the retention of birth control inform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61-64.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 Harper & Row.
- Shaw, D. S., Keenan, K., & Vondra, J. I. (1994). Developmental precursors of externalizing behavior: Ages 1 to 3. *Developmental Psychology*, 30, 355-364.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78-986.
- Stephan, W., Berscheid, E., & Walster, E. (1971). Sexual arousal and heterosexual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93-101.
- Toffler, A. (1970). *Future Shock*. London: Pan Books.
- Toner, I. J., Moore, L. P., & Emmons, B. A. (1980). The effect of being labeled on subsequent self-control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1, 618-621.
- Toner, I. J., Parke, R. D., & Yussen, S. R. (1978). The effect of observation of model behavior on the establishment and stability of resistance to deviation in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2, 283-290.
- Toner, I. J., & Potts, R. (1981). Effect of modeled rationales on moral behavior, moral choice, and level of moral judgement in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107, 153-162.
-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 Vygotsky, L. S.(1934/ 1962). *Thought and language*. Massachusetts: MIT Press.
- Walker, L. J., & Taylor, J. H. (1991).

- Stage transitions in moral reasoning: A longitudinal study of developmental process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30-337.
- Wertch, J. V. (1985). Adult-child interaction as a source of self-regulation in children. In S. R. Yussen (Ed.), *The growth of reflection in children*. London: Academic Press.
- Yaffe, M., and Nelson, E. (1982). *The influence of pornography on behavior*. London: Academy Press.
- Zahn-Waxler, C., Radke-Yarrow, M., & King, R. A. (1979).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인간발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01. Vol. 8, No. 1.

A Psychological Review on Moral Judgement and Self-Control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xposed to Pornography.

Maria Kyung - Hee Kim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effect of pornography on the moral judgement and self-control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hen they were exposed to pornography. At this study, the psychological variables and researches on the effect of pornography were reviewed and discussed. In particular, moral judgement and self-control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xposed to pornography were discussed. Further research was also suggested.

Key words : Pornography • Moral Judgement • Self-Control